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 국방우주력 발전 심포지엄에서 문정인(앞줄 가운데)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김성일(앞줄 왼쪽 넷째) 국방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점증하는 위협 대비... 국방우주력 발전방안 모색

국방부, 민·관·군 합동 심포지엄
대내외 저명인사 11명 참석
주제발표·전문가 토론 진행
美 우주군참모총장 등 영상 메시지

국방부는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20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개최해 점점 늘어나는 우주위협에 대비한 국방우주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와 국방대가 공동 주관한 이번 심

포지엄에는 대내외 저명인사 11명이 참석해 국방우주력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깊이 있는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장 모습을 실시간 생중계했다.

심포지엄은 김성일 국방대 총장의 개회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영상 환영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또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과 미셸 프리들링 프랑스 합동우주사령부 사령관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방우주협력

의지도 전했다.

본 세션에서는 '동북아 군비경쟁에서의 우리 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북아 군비경쟁에서의 우주'를 주제로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정세에서 국방우주력의 역할과 우리 군의 우주정책 및 전략의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방우주력 발전 목표 및 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우주기술 발전동향을 살펴보고 우주 분야에서의 기술적 혁신에 발맞춘 우리 군의 우주력 건설 방안을 모색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민·관·군이 함께 모여 우리 군이 우주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인 국방우주력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서장관은 이날 영상 환영사에서 "2020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을 통해 대내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군의 우주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방부는 우리 군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인 우주에서도 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한미동맹, 대한민국 안보에 사활적 문제”

육사,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챗터와 ‘차세대 동맹 강화 프로그램’ 협약식

육군사관학교(육사)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챗터(KDVA-KR)와 ‘차세대 동맹 강화 프로그램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 행사에는 KDVA-KR 이서영(전 주미국방무관) 회장과 육사 정진경 학교장 등이 참석해 미래 국방을 이끌어 나갈 육사 생도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협의 및 약정했다.

협약에 따라 육사는 KDVA-KR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6·25전쟁 참전 미 육사 졸업생 전사자 추모 행사 개최, 우수 주한미군 장병 육사 초청 행사 개최, 6·25전쟁 및 한미동맹 관련 학술세미나에 대한 생도 참

여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 회장은 협약식 행사에 이어 육사 대강당에서 졸업 및 임관을 앞둔 육사 4학년 생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특별강연 및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미 랜드(RAND) 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역임한 한미동맹·군사외교 분야 전문가인 이 회장은 특강에서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협력체계, 양국의 안보현안 및 차기 미 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등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강연해 생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한미동맹은 사활적인 문제”라며 “호국간성인 사관생도들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챗터(KDVA-KR) 이서영(왼쪽 넷째) 회장, 육군사관학교 정진경(왼쪽 다섯째) 학교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차세대 동맹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이 협맹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장교로 임관하면 동맹 강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KDVA-KR은 전 한미연합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예비역 대장이 회장을 맡은

‘KDVA’의 한국 본부와 같은 단체다.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의 명예 선양,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콘퍼런스, 교육, 장학사업, 세미나, 포럼, 격려행사 등 뜻깊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김상윤 기자

병무청, 병역이행 응원 ‘자랑스러운軍’ 캠페인

연예인 출신 병사 등 재능 기부
맞춤형 메시지로 자긍심 고취

병무청이 23일 병역에 대한 긍정 인식 확산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 이행을 응원하는 ‘자랑스러운(軍)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병역 의무를 앞둔 젊은 청년들과 성실히 군 복무 중인 장병, 그리고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병역 이행자에게 감사의 마음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병역 이행을 앞둔 젊은 청년에게는 병역이 또 다른 희망이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장병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며,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명예임을 강조하는 맞춤형 메시지를 통해 병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챌린지는 그룹 예소 출신의 육군수도기 계화사단 도경수 병장, 그룹 비투비 출신의 국방부 근무지원단 육성재 일병 등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연예인 출신 병사의 재능기부와 모종화 병무청장, 자원병역이행자인 하유민(중국 영주권 보유) 상병, 가수 민경훈, 걸그룹 CLC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릴레이 응원 방식으로 진행

된다. 응원 영상과 사진은 병무청 홍보채널인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모 청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용기 있는 선택과 실천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을 당당히 이행하신 분들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